

보도시점 (온라인) 2026. 9. 30.(수) 12:00
(지 면) 2026. 9. 30.(수) 석간

행안부-SK사회적가치연구원,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성과 측정하고 보상한다

- 행안부, 9월 30일(수) 사회적가치연구원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 2027~2029년 3년간 총 15억 원 규모 협력... 우수모델 성과기반보상 지원
- 개별기업 넘어 지역 혁신모델까지 사회성과비례보상(SPC) 접목 및 범위 확대

행정안전부와 사회적가치연구원이 손잡고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의 성과를 측정해 성장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9월 30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SK가 설립한 사회적가치연구원(이사장 최태원)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협약은 개별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측정·보상해 온 사회성과인센티브(SPC, Social Progress Credit)*를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에 접목하여 적용 범위를 한층 넓힌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사회문제해결 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고 그 성과에 비례하여 현금 보상책 제공

행정안전부는 이를 통해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이 지역에 가져온 변화를 확인하고, 성과가 우수한 모델의 성장과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 혁신모델의 문제해결 성과를 측정하고 성장지원 보상책으로 연결

양 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 사업 선정 지역을 대상으로 문제해결 성과를 측정하고, 성과 수준에 따라 우수모델 보상책(성장지원금)을 제공하는 데 협력한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은 맞춤형 사회성과 측정 지표를 개발하고, 성과를 측정·검증하며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총 15억 원 규모의 협력을 추진한다.

>> 민간의 전문성을 더해 사회연대경제 우수모델 확산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사회성과 창출을 이끌어 내며, 우수모델을 확산함으로써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측정 대상을 개별 기업에서 지역 혁신모델로 넓히며 향후 지역·도시 단위의 사회적 가치까지 측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사업 선정과 추진 지원에 더해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지역 사회에 접목하여 성과가 확인된 혁신모델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은 “지역에서 만들어낸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그 성과를 성장지원으로 연결하는 것이 이번 협약의 핵심”이라며, “민간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우수한 사회연대경제 모델이 더 많은 지역으로 확산되고,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자치혁신실 사회연대경제지원과	책임자	과 장	염성욱	(044-205-3211)
		담당자	사무관	김원한	(044-205-3213)
		담당자	사무관	김윤희	(044-205-3218)

